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206-362-2278 | 연령회: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홍광철 세례자 요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1,36)

세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어린양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1,36)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어린양 이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며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고대하던 하느님의 어린양,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라고 알려진 것처럼 사제도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어린양이심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가 감히 들고 있는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며, 이제 한없이 부족하지만 한 내가 감히 두 손을 내밀어 받아 모실 성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체를 모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① 이 어린양은 예언자들이 예고한 하느님의 종이십니다.

이 고백은 백인대장의 굳은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고, 이 고백을 주님께서서는 기쁘게 들으셨고, 백인대장의 청을 들어 주셨습니다.

②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는 어린양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시어 속량하시는 어린양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과 피를 빵의 형상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성체 안에서 힘을 얻고, 빵의 형상으로 나에게 오신 “하느님의 어린양”과 함께 힘차게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나 또한 세상을 위해 내가 내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③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께 오로지 순종하시며,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당신 몸을 속죄제물로 바치시어 세상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사제도 영성체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줍니다. 사제는 겸손하게 성체안에 계신 예수님께 허리 숙여 인사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체를 들어서 보여 주며 외칩니다.

백인대장처럼 그렇게 확고하고 굳은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어린양의 삶을 내 삶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미사 안내		성사 안내		학교	
주일미사	(토요일 저녁) 오후 7:30 (주일) 오전 8:00 / 10:00 오전 11:30 (학생) 오후 6:00 (청년)	환자 봉성체	매달 첫 목요일 오전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00
월	오전 10:00	병자성사	구역장을 통해 신청	YG(고등부)	(주일) 오전 10:00
수/목/금/토	오전 10:00	성체강복	매달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	한국학교	(금) 오후 7:00
화/수/목/금	오후 7:30	예비신자교육	(주일) 오전 8:20		(토) 오전 9:30
				안드레아 문화대학	(주일) 오후 1:00-4:00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예수님께서서는 어부들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마 어부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자신들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신 다음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십니다.(마르1,19)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셨을 것이고, 그들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두 보고 계십니다.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 자세까지도 예수님께서서는 보고 계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는 시몬과 안드레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아는 당당하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니 응답하면 되는 거야.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쓰시겠지. 우리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어부이지만, 물고기 밖에 잡을 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어. 난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선 거라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마르1,20) 예

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섭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기쁨에 넘쳐서 떠나 나섰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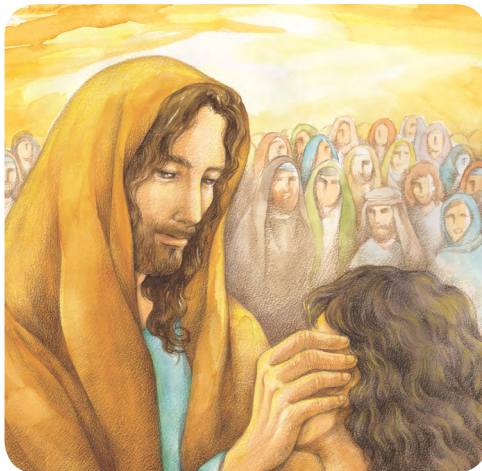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나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버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

쁨에 넘쳐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수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불신을 버리고, 한 점 의혹도 없이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또한 스승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찾고, 내세우며, 자신의 뜻을 이루

고자 한다면 그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을 따른다고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사람은 스승의 제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쁨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쁘게 버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버려야 하고,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움켜잡은 것을 버릴 때, 나는 기쁨에 넘치고, 참된 자유 안에서 주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인간은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다양한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기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자신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나와 함께 머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낮에는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들은 기도를 다양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내고, 나를 봉헌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혼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표현하신 성인들도 계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온갖 사랑과 흠숭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화하기에 성 아우구스티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애정으로 가득 찬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이니,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다가가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으로 바친다 하여 “구송기도, 염경기도”가 있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신비와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교와 현존으로 이끌어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관상기도가 있습니다. 묵상기도에서는 추리작용이 대세를 이루지만 관상기도에서는 추리작용이 사라지고 주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를 체험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함께 기도할 때는 염경기도를 바치고, 홀로 기도할 때는 염경기도가 묵상기도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관상기도까지도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깊이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예

1분 교리

성당에 들어가면

성당은 하느님 백성의 공적예배(전례)가 거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갈 때는 옷때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성당에 들어갈 때는 성수를 찍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아멘.” 또는 “주님, 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두 기도의 특징은 성수를 찍으면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장례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 왔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눈에는 나만 보이고, 내 눈에는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당의 중심은 미사가 봉헌되는 제대입니다. 제대는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제대 앞에서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고,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기에 하느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당에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하느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성당 안에는 빨간 등이 켜져 있는 감실이 있습니다. 감실은 신자들이 미사 때에 받아 모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 곧 성체를 모셔 놓은 곳입니다. 병자들에게 성체를 모셔가기 위해서 감실에는 늘 성체를 모셔 놓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성당 안에서 성체께 조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체를 모셔 놓습니다(성체조배). 예수님께서서는 밀떡의 형상으로 감실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성당에 들어서면 감실 앞에서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재의 수요일 일일 피정 안내

.....

아침 : 단식

- 9:00 각 뵘레시디움 주회
- 10:00 미사 및 재의 예식
- 11:00 신앙인의 단식과 금욕
- 12:00 십자가의 길
- 12:40 단식기도
- 1:00 귀가

오후

- 6:30 각 뵘레시디움 주회
- 7:30 미사 및 재의 예식
- 8:30 십자가의 길을 바치는 그리스도인들
- 9:30 귀가

사순시기를 시작하며

재의 수요일(14일)을 시작으로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올 사순시기는 주님 마음에 드는 생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생활을 해 봅시다.

① 재의 수요일엔 반드시 참례를

재의 수요일 미사에 반드시 참례하여 재를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에 마음을 열어 봅시다. 흠으로 돌아갈 몸임을 기억해 봅시다.

② 절제하는 생활

음식을 절제하고, 소비를 절제하여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③ 사순시기 동안 가족과 함께 한번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에는 단체별, 레지오 별, 그룹 별로 많은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가족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 보신다면 부활을 더 기쁘게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④ 구역 별 판공에 참여하십시오.

각 구역별 판공 일정이 공지되었습니다. 판공 일정에 꼭 참여하십시오.